

01

세탁용 분말 세제

세정·살균

세탁용 분말 세제, 세탁용 가루비누



01

제품

- 일반의류용(면·마·합성 섬유용), 작업복용, 운동화용 등이 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세탁세제 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계면활성제가 주성분이며, 알칼리제나 유연제 등의 세정보조제(빌더)나 첨가제를 함유한다.
- 세정성분은 음·비이온계면활성제 10~30% 정도, 알칼리제로 탄산염·규산염 등 10~50% 정도 포함된다.
- 연화제로 사용되는 알루미늄규산염(산화알루미늄, 실리카)은 10~35% 정도, 황산염은 5~35% 정도 사용되며 기타 효소, 형광증백제, 색소, 향료 등을 함유한다.

02

초기대응 포인트



경구 노출

- 입안의 물질을 제거하고, 입을 행군 후, 유제품 또는 물을 마시게 한다.
- 얼굴, 손발, 의복에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샤워 등으로 전신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

즉시 진료

- 구토와 기침을 자주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더라도, 대량으로 섭취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특히 고령자의 경우)

경과 관찰

- 핏거나 한 모금 마신 정도로 목 통증, 구역질, 구강의 위화감 등 가벼운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



눈에 들어간 경우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여, 즉시 세안한다.

즉시 진료

- 눈 뜨기 곤란한 경우
- 눈 씻기가 어려운 경우
- 콘택트렌즈가 빠지지 않는 경우

만약을 위한 진료

- 세안 후에도 통증, 충혈 등 있는 경우



피부 노출

만약을 위한 진료

- 세척 후에도 발적, 통증, 발진 등이 있는 경우



흡입한 경우

- 분말을 흡입하여, 기침이나 천식 등이 있는 경우

높은 정도나 소량의 섭취로는 심각한 중독은 일어나지 않으나, 잘못 마신 경우나 흡입한 경우에는 중증화될 수 있다.



경구

- 구강·인두의 염증,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딸꾹질, 고장(鼓腸) 등. 구토는 1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일이 많다.
- 잘못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피부

- 가려움이나 통증, 홍반, 발진, 수포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자극성 접촉피부염).



눈

- 충혈, 각막 미란, 결막 부종



흡입

- 기침, 천식, 쉼소리, 상기도 부종, 빈호흡, 호흡곤란, 발열

경로나 양에 따라서 계면활성제나 알칼리제(탄산나트륨, 규산나트륨 등)에 의한 피부 및 점막 자극이 문제가 된다.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의 작용, 특히 국소작용은 농도에 의존한다. 저농도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고농도에서는 중증화된다. 따라서 독성치가 낮아도 고농도의 계면활성제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알칼리제(탄산나트륨, 규산나트륨 등)

알칼리제의 주요 작용인 조직의 부식 정도는 노출량보다는 농도나 점도, pH, 접촉 시간에 크게 좌우된다.





경구

- 1) 제거 | 입안에 남아있는 것을 뱉게 한다.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입안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닦아낸다.
- 2) 행굼 | 입을 행구고 가글한다. 가글할 수 없는 경우는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
- 3) 수분섭취 | 유제품(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물을 마신다. 마시는 양은 120~240mL
(소아는 체중 1kg당 15mL 이하, 억지로 마시게 하여 구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이유 : 단백질에 의한 점막 보호나 희석으로 자극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눈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고, 즉시 물로 씻는다.
-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쉽게 뺄 수 있으면 뺀다.



피부

- 1) 제거 | 피부에 부착된 것을 제거하고 닦아낸다. 부착된 의복은 벗는다.
- 2) 세척 | 충분히 물로 씻는다.



흡입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계면활성제

[흡수] 분자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화관에서 흡수된다.
[대사·배설] 간에서 대사된 후, 소변 또는 대변으로 배설된다.



생활화학제품 응급대처 가이드북 I

※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해주세요.